

한국 주거공간용어 변화에 대한 기초 연구 - 문학작품에 나타난 용어를 중심으로 -

A Fundamental Study on the Change of Korean Dwelling Space Terms

신화경* 김대년** 서귀숙***
Shin, Hwa-Kyoung Kim, Dae-Nyun Suh, Kuee-Sook
오혜경**** 최경실*****
Oh, Hye-Kyung Choi, Gyoong-Si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change of Korean dwelling space terms, and confirm the value of literature as data for a study on dwelling space terms. The terms, which describe the dwelling space, were selected in 63 Korean literature. The terms about rooms, working spaces, space for physiology and hygienic, and storage spaces, were analyzed. The terms about rooms were classified by a constituent unit of traditional housing, location, size, function, and so on. Among them, the number of terms about function had increased more and more. These terms were changed by housing size, housing form, structure of house and household, family size, and so on. It was confirmed that literatures have utility values for a study on change of dwelling space terms. In next study, it is required to analyze the meaning and usage of Korean dwelling space terms, and to compare terms in floorplans with terms in literature.

I. 서 론

주택의 형태 변화 및 의식구조의 변화로 주택의 각 공간에 대한 명칭(이하 공간용어로 명명함)이 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주택에서 현대주택으로 변화된 오늘날, 이러한 공간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거나 변화된 공간간의 연계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간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전통주택의 대청이 거실로 변화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최재필은 전통주택의 대청과 현대주택 특히 아파트의 거실과는 그 용도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전통주택의 중정이 하늘과의 수직적인 연계를 보이는 등의 상징적인 의미는 사라졌으나 용도상에서 보면 아파트에서는 거실로 나타나면서 우

리의 전통적인 주생활이 성공적으로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한다⁵.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거공간용어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며 또한 공간용어에 대한 검토는 주택관련 실무자와의 의미 전달이나 교육자들의 교육자료를 위한 체계화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공간용어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방법은 문학작품을 이용한 분석, 생활사의 연구, 주택도면의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문학작품에 표현된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주거공간 용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풍경에는 자연공간과 같이 도시나 건축공간이 존재한다. 문학에 표현되는 건축과 환경은 그 공간에 대한 정서 혹은 의식 및 목적이 되기도 한다. 또한 문학에 묘사된 공간은 작가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작가의 감정을 통해 걸려진 정신적 가상공간으로 작가는 이에 공간적 감정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로써 독자에게 이를 나타낸다. 즉, 문학에 묘사된 공간은 어휘로 표현되며 이들 어

*정희원, 상명대학교 소비자 주거학과, 조교수

**정희원,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교수

***정희원, 가톨릭 대학교 소비자 주거학과, 강사

****이 사,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교수

*****정희원,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환경디자인 전공, 조교수

회 집단은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공간을 묘사한다. 따라서 언어적 특성의 의미와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언어와 공간의 상호연관을 이해할 수 있고 건축적 의미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문학작품이 사용되고 있다⁷.

문학작품과 실내·건축공간과의 상호연관시키는 연구는 이미 외국에서 시도되어 오고 있다^{8,14}. 건축분야에서는 특히, 건축사 분야에서 고대 문학과 연관시키는 연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건축 뿐 아니라 국문학 분야에서도 건축과 관련시켜 문학을 평론하고 있으며, 이밖에 문화 및 역사, 풍속연구 분야에서도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실제, 일본의 張文과 中川景子, 若山滋는 『萬葉集에 나타나는 건축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만엽집이라는 고대 노래를 모아놓은 자료에서 건축용어를 추출하여 그 시대의 공간과 그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과 환경의 의미를 찾아 공간의 정서성을 탐구하고 있으며¹⁰, 若山滋는 『源氏物語에 관한 건축공간』 연구에서 일본의 고전문학에서 家, 殿, 宮 등 건축물 전체를 표시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공간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⁸. 이와같이 언어가 은유적으로 공간을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은 건축적 공간이 언어로써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축 공간연구의 자원으로서 문학의 중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⁷.

물론 문학은 작가의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며 문장에서 작가의 의사를 하나의 심층세계로서 읽어낼 수도 있지만 작가는 어떠한 문화현상에서도 비교적 다수의 독자를 상정하면서 글을 쓰게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작가와 독자간의 공동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작품이 발간되는 시점에서는 그 작품이 작가의 의사와는 별개로 그 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기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공간을 나타내는 정확한 용어를 정립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연구 중 기초단계로, 문학작품 속에 표현된 주거공간관련 용어를 이용하여 시대별 주거공간용어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시대에 따라 어떠한 용어가 사용되었는가를 분석하여 시대별 주거공간에 관한 공간용어 사용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며, 부수적으로 주거공간용어를 조사하기 위한 분석자료로서 문학작품의 이용가능성을 확인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자료추출 및 분석방법

주거공간 관련 용어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한 문학작품은 총 63개의 소설로, 주로 소설 및 고문학 전공자¹⁰의 자문을 받아 주택 실내공간에 대한 묘사 내용이 많은 작품으로 선정하였으며 시대별 작품 및 장·단편의 안배를 위해 연구자들이 수차례 협의하여 추가로 작품을 선정 보완하였다. 주거공간용어를 추출한 문학작품은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은 단어 수준에서 해석하는 방법과 문장의 단락 수준에서 해석하는 방법, 및 작품 수준에서 해석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는데 문학작품과 건축공간과의 연계 연구를 위해서는 흔히 단어수준과 문장수준에서의 해석방법이 사용된다. 이는 문장에는 공간이 표현되고 그 공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공간이 갖는 전체 이미지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공간을 문장에서는 언어를 이용한 단어로 그 개념을 요약하여 지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 5인이 선정된 문학작품에서 일차적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문장을 추출하고, 주거공간 관련 용어가 포함된 문장에서 주거공간용어만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단순 빈도를 이용하였으며 단어수준에서 해석하였다.

2. 시대구분

흔히 조선시대 이후 한국주거형태의 변화는 19세기 말의 개화기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시행의 두 차례 전환기를 맞는다고 한다. 즉, 개화기에는 봉건적인 유교사회에 외래문화가 들어오면서 신분제도의 붕괴와 전통적인 경제체제의 재편성, 가사제도의 철폐 등 의식구조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주택부분에서는 1910년대에 민간 건축분야에서 한일절충식, 한일양 절충식, 다층주택 등이 소개되는 등 일시적이기는 하나 과도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1,3,4}. 1920년대에는 신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주생활 개선과 주택개량운동이 일어나면서 서민들의 주택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1925년 농촌 인구의 유입에 따른 도시화 현상, 1941년 조선영단 설립에 이은 표준 주택의 공급 등으로 인해 주거형태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⁴.

1920년대의 시대적 상황 변화가 실제적으로 주거공간에 반영되어 현실화 되기 시작하기까지는 사실상 약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량한옥의 보급시기는 1930년으로 본다². 실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택난이 심화되고 주택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임대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

표 1. 문학작품의 출판연도 및 배경연도

작품명(작가)	연대							연대						
	1900년~ 이전	1930년~ 이전	1950년~ 이전	1960년~ 이전	1970년~ 이전	1980년 이후	1900년~ 이전	1930년~ 이전	1950년~ 이전	1960년~ 이전	1970년~ 이전	1980년 이후		
대하(김남천)	★ ◎						★		◎					
우목배미의 사랑 (박영환)			◎ ★				미루(오영수)			★ ◎				
귀의 성(이인직)	★ ◎						수련(오영수)			◎ ★				
삼대(염대섭)	★ ◎						은내꼴 이야기(오영수)			◎ ★				
지상의 방한칸		◎ ★					매아리(강신재)			◎ ★				
홍부전(박화목편)	★ ◎						화산댁이(강신재)			★ ◎				
비오는 날(염상섭)		★ ◎					오지에서 온 편지 (강신재)			◎	★			
암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이순원)			★ ◎		★ ◎		어린상록수(강신재)			◎				
춘향가	★ ◎						태양의 유산(유주현)			★ ◎				
무정(이광수)	★ ◎						연덕을 향하여(유주현)			★ ◎				
인간사(최정희)		◎ ★					장씨일가(유주현)			◎ ★				
홍가(최정희)		◎ ★					흰종이 수연(하근찬)			◎ ★				
허물어진 환상(한무숙)		◎ ★					남한산성(유주현)			◎				
월훈(한무숙)		★ ◎					이여도(정한숙)			◎				
날풍(손소희)		◎ ★					전황당인보기(정한숙)			◎ ★				
젊은 느티나무(강신재)		★ ◎					혹산도(전광용)			★ ◎				
난리 그 뒤(강신재)		◎ ★					꺼빼딴리(전광용)			★ ◎				
이브의 변신(강신재)		★ ◎					외딴 방(신경숙)			★ ◎				
투기(강신재)		★ ◎					그림자 외출(서한진)			★ ◎				
녹지대와 분홍의 애드 별꽃(강신재)		★ ◎					모든 벽은 문이다 (윤영수)			★ ◎				
노파와 고양이(한말숙)	★ ◎						목마른 계절(공선옥)			★ ◎				
에미(윤홍길)		◎	★				떠있는 망루(최문희)			★ ◎				
장미(윤홍길)		◎	★				경영(김남천)			★ ◎				
아홉걸레의 구두로 남 은 사내(윤홍길)		★	◎				맥(김남천)			★ ◎				
관촌수필(이문구)		◎	★				창랑정기(유진오)			★ ◎				
노을(김원일)		◎	★				장석조네 사람(김소진)			◎	★			
미방(김원일)		◎		★	★	★	임꺽정(이광수)		★ ◎					
토지(박경리)	◎	◎	★	★	★		행랑자식(나도학)		★ ◎					
감자(김동인)		★ ◎					흙(이광수)		◎ ★					
소(전영택)		★ ◎					별을 헨다(계용묵)			◎ ★				
화수분(전영택)	★ ◎						고향(현진건)		★ ◎					
배따라기(김동인)		◎ ★												

출판연도 ★, 배경연도 ◎.

겨우며 개량 한옥이 절정을 이루었고 종류 계층의 도시주택으로 각광을 받았다.

해방과 6.25 사변 후 1960년대까지는 서구문물의 도입과 재료공급의 발달이 주거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데 특히 6.25사변으로 인한 엄청난 주택의 손실로 인해 단기적인 주택공급을 필요로 하고 이때 전통적인 것보다는 서구의 근대적인 건축방식이 유입되어 서구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6.25동란이전까지는 개화기이전인 1900년 이전과 1900~1930년 이전, 1930~1950년 이전의 3단계로 나눈다.

1960년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실시로 주택의 대량 공급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고 1970년대에는 주택의 규모가 커지며 건설붐으로 이어지는 성장기로 볼 수 있다. 또 1980년대에는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주택시장이 안정되었지만 주택난이 가속화되면서 집합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대량 건설되었다. 1990년대에는 주택의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10년단위로 구분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대구분은 소설의 배경시기를 기준으로 1900년 이전과 1900~1930년 이전, 1930~1950년 이전, 1950~1960년 이전, 1960~1970년 이전, 1970~1980년 이전, 1980년 이후 등 7단계로 구분하였다.

III. 분석대상 문학 작품의 종류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된 문학작품의 배경을 시대별로 보면 60년대의 작품이 가장 많았으며 1900년대 이전과 1970년~1980년 이전이 가장 적다. 문학작품의 종류를 대하소설, 장편소설, 중편소설, 단편소설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00년 이전은 장편소설만 3편이었으며 1900년~1930년 이전은 장편이 5편으로 다른 종류의 소설보다 많다. 1930년~1950년 이전과 1950년~1960년 이전과 1960년~1970년 이전은 단편이 상대적으로 많다. 1970년~1980년 이전은 중편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1980년 이후는 단편만 많이 선정되었다(표 2).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로 문학작품의 종류를 비슷

표 2. 분석대상 문학작품의 종류

	1900년~1930년~1950년~1960년~1970년~1980년	이전	이전	이전	이전	이전	이후
대하소설	1	1					
장편소설	3	5	1	3	1		
중편소설		1	2	2	1	2	
단편소설		4	5	17	7	1	6
계	3	11	9	22	9	3	6

하게 표집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주거공간에 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된 소설을 선정하다보니 시대별로 정확하게 문학작품의 종류를 안배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대별로 소설의 분량이 다르게 되므로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거공간용어의 빈도만으로 공간용어의 변화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공간용어의 빈도는 전반적인 공간용어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가정하에 문학작품에 나타난 공간용어의 출현여부와 사용빈도를 이용하여 각 공간에 대한 용어 사용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IV. 주거공간 관련 용어

각 문학작품에서 추출한 주거공간 관련 용어는 방(실), 작업공간, 생리위생공간, 수장공간으로 나누어 시대별로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거내 방(실)에 관한 용어의 변화

방(실)에 관한 용어는 일반적인 명칭과 위치, 면적, 사용자, 재료, 기능 등에 의해 명명되는 용어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용어로 방이라는 명칭은 1900년 이전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나 점차 그 빈도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방과 전녀방, 사랑방, 행랑, 대청 및 마루 등도 1900년 이전, 1900~1930년 이전과 1930~1950년 이전에는 다른 시대보다 많이 나타났으나 점차 현대로 오면서 이들 용어의 출현비율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50년 이후에 나타나는 사랑방, 대청/마루, 행랑방이란 용어의 급감 및 소멸은 전통주택의 감소라는 주택유형의 변화와도 백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치로 표현되는 방에 대한 용어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옷방, 아랫방, 앞방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모든 시대에 산발적으로 나타났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의 주택이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 과거 전통주택이 주를 이루던 시대와 비교하여 여러점에서 변화가 일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지하실(방)과 이층방/이층다락방이란 용어가 1970년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이들 공간의 생활공간화 및 변화된 주거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에 관한 표현은 큰방/넓은 방, 작은방 등과 같이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경우와 단칸방/일간방, 두간방 등과 같이 실제 크기를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주로 상대적인 크기를 표현하는

표 3. 주거내 방(실)에 관한 용어

방(실)	연대 1900~1930~1950~1960~1970~1980년					
	이전 1930	1950	1960	1970	1980	이후
방	800	160	178	1	18	15
안방	189	120	39	21	7	3
건넌방	191	56	10	10	2	12
사랑방	146	102	40	5	2	2
일반	안사랑	3	2			
	사랑안방/사랑건너방			1/1		
	행랑방	43	67	6	3	
	대청	33	3	15	25	3
	마루/대청마루			178	92	88
				25/4	5/1	3
						13
온돌방(윗방)	36	4		13		
아랫방	92	14	7	8	1	
앞방					1	
뒤방	4	4		10	2	
옆방		1	5	4		3
위치	바깥방	1		1		
	문간방			6	6	
	가운뎃방/중간방		2/2			
	곁방				1	
	골방	12	2	4	4	2
	구석방	1				5
	지하실방				7	2
	이층방/이층다락방		1		1	4
	끌방				2	
큰방/넓은방						
규모	작은방	13/1	11	4	31	1
		1	12	7	2	
	큰사랑방	20	5		5	
	작은사랑방		8			
	단칸방/일간방	1		2/1		9
	두간방			2		
색씨방				2		
사용자	모친방/어머니방		2/2			
	할머니방			1	1	
	하인청/마슴방	5/8			1	
	가정부방/식모방		/1	1/1		
기능	서재/공부방	3		3		6/1
	객실				1	
	침실	10	1	3	2	
	침전	16				10
	거실/거실마루	1	3	3	1	1
	응접실			2	1	4
	식당/식당방		7		2/1	
	침방	1				2
	의상실					
	수정방	17				
	허드레방			1		
	마방	2	9			
	도방			2		

표 3. 계속

방(실)	연대 1900~1930~1950~1960~1970~1980년					
	이전 1930	1950	1960	1970	1980	이후
온돌방/캉(온돌)		2	1	6/1		
재료	장판방		1			
	판자방		1			
	마루방	18	2	3	3	1
	다다미방		1	1	1	2
기타	양실		3			
	별실		1	4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표현도 1960년대 이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용어로 나타났다.

사용자를 기준으로 명명된 용어는 색씨방, 모친방, 할머니방 등과 같이 여성을 위한 공간과 고용인을 위한 공간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중 전통 계급사회에 존재하던 하인계급인 하인이나 머슴이 사용하는 공간은 개화기 이후 계급사회의 소멸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새로운 고용인인 식모방이나 가정부방의 명칭 출현 및 소멸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능에 의한 공간용어는 서재, 객실, 침실 등 다양하며, 특히 1980년 이후에는 다른 기준에 의한 용어에 비해서 기능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실은 1900년 이후 서구문물의 도입으로 인한 주택구조의 변화 및 새로운 공간의 출현을 나타내고 있으며 1980년 이후에는 거실의 생활공간으로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침실내에 별도로 위치한 개의실 기능의 의상실이란 용어가 새로이 등장한다. 이는 전통주거 공간에서는 없던 용어로 전통공간과 현대주거공간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거나 이 용어의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재료에 의한 공간용어로는 온돌방, 장판방, 마루방, 다다미방 등 주로 바닥재를 기준으로 명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양실이라는 용어 등이 사용되고 있다.

2. 주거내 작업공간에 관한 용어의 변화

주거내 작업공간에 관한 용어로는 부엌, 봉당, 정지, 주방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표 4). 부엌이란 용어는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전통주택에서는 안채와 사랑채 각각에 부엌이 존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50년 이후부터는 개량부엌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1980년 이후에는 입식부엌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 부엌의 형태

표 4. 주거내 작업공간에 관한 용어

작업공간	연대 1900년~1930~1950~1960~1970~1980년						
	이전	1930	1950	1960	1970	1980	이후
부엌/부엌방	64	75	66	73/5	10/2	11	24
안방부엌/안(채)부엌	3	/3		/2		/1	
사랑채부엌				4			
봉당	68						
정지	2		2	1	1		
주방						6	

변화를 예측하게 한다. 그리고 1980년에 나타나는 주방이란 용어는 이런 부엌의 형태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주거내 생리위생공간에 관한 용어의 변화

주거내 생리 위생공간은 설비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가장 많이 변화하였다고 하는데³, 실제 문학작품에서도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실제의 위치나 혹은 생리 위생활동의 경시로 인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뒷간이란 용어가 개화기 이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소수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문학작품에 등장하고 있다. 또한 남녀 유별을 강조하던 유교와 상하구분의 신분제도에 영향으로 1900년대 이전에는 안뒷간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신분구별에 의한 공간의 분화까지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오면서 뒷간이란 용어가 점차 적게 사용되는 반면 변소라는 용어가 점차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장실이란 용어의 사용빈도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생시설설비의 변화와 위치의 변화로 인한 공간용어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욕실, 목욕탕/욕탕 등의 용어 사용은 개화기 이후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시대 전통주택내 사당공간을

표 5. 주거내 생리 위생공간에 관한 용어

생리위생공간	연대 1900년~1930~1950~1960~1970~1980년						
	이전	1930	1950	1960	1970	1980	이후
축간(적간)	1			1			
뒷간/안뒷간	15/2	21	1	6	1	1	1
통ս간/뚱두간		2		2		1/1	
통시			1	10	4	4	
변소	1	1	2	7		8	2
화장실				5	1	2	8
욕실	1	1	3	3			2
목욕탕/욕탕	2	4			1	2	
세면장						1	

표 6. 주거내 수장공간에 관한 용어

작업공간	연대 1900년~1930~1950~1960~1970~1980년						
	이전	1930	1950	1960	1970	1980	이후
광		13	3	1	3		2
곳간		11	3	1	3		
헛간		7	4		7	1	
다락		1	1			1	1
찬간				1		1	1
찬방				4			
청간				1			
창고					1	2	1
고방					1		1
벽장					6		

욕실로 전용사용하는 것과 개량한옥 및 문화주택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4. 주거내 수장공간에 관한 용어의 변화

주거내의 수장공간에 관한 용어는 광, 곳간, 헛간, 다락, 찬간 등 다양하였으며 광, 곳간, 헛간, 창고라는 용어가 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또한 개량한옥이나 문화주택이 보급되기 전인 1930년이전까지는 수장물품의 종류에 따른 수장공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대로 오면서 수장공간에 관한 용어의 종류가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수장공간 종류의 축소는 공간규모의 축소와 주택구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주거공간용어 사용 및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공간 관련 용어의 변화특성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실)을 나타내는 용어는 전통주거공간의 구성요소로 보이는 일반 공간명칭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에는 공간의 위치와 규모, 사용자, 기능, 재료 등을 기준으로 한 공간용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현대에 있어서는 전통공간에서 볼 수 없었던 방에 대한 새로운 공간용어가 출현하고 있으며 기능에 의한 공간용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작업공간으로는 부엌공간이 주로 존재하였으나 시대에 따라 개량부엌 혹은 입식부엌이란 용어가 등장하여 형태나 시설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게 하며 이들 변화와 함께 주방이란 용어가 등장하였다. 생리위생공간으로는 뒷간에서 변소, 화장실, 욕실 등

시대별 시설설비의 변화를 예측하게 하는 공간용어가 시대별 상대적 비중을 달리하여 사용되었다. 주거내 수장공간은 수장물품에 따라 다양한 공간용어가 사용됨을 알 수 있으며 현대에 오면서 그 종류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거공간을 직접 분석하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이라는 간접자료를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 문제와 각 시대별 문학작품의 양이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 해석의 일반화에는 한계점이 있기는 하나, 시대별 사용되는 공간용어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 변화는 각 시대에 따른 주거형태 및 규모의 변화와 타 문화의 유입, 가치관 및 사회구조(가족구조), 시설설비의 발전 및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주거공간의 변화를 이해하고 사용되었던/사용되는 공간용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문학작품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간의 용어만을 이용하는 단어 수준에서 문학작품을 분석을 한 본 연구는 동일공간을 의미하는 상이한 용어들의 정확한 차이와 한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의 시대별 변화추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공간용어를 포함하는 문장수준에서의 분석을 통한 공간의 용도 및 내재된 사용의식을 포함할 수 있는 의미분석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보다 정확한 공간용어의 변화양상과 전통주거공간과 현대주거공간과의 연계를 밝히기 위한 시대별 평면도 분석 및 문학작품에 언급된 공간용어와의 비교분석이 후속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

- 1) 소설을 전공한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외곤 교수, 고문학을 전공한 경희대학교 국문학과의

수업교수를 역임한 김현주교수.

참고문헌

1. 강영환 (1991).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 유영희 (1994). 도시 한옥의 변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윤복자 (1997). 한국 위생공간의 변천에 관한 연구. 태평양 장학문화재단.
4. 윤정숙, 이경희, 홍형옥 (1998). 주거학. 방송통신대학.
5. 최재필 (1997). 우리나라 근대 주거의 변화. 대한건축학회 편. 주거론. pp.157-186.
6. 홍형옥 (1995). 한국주거사. 민음사.
7. 徐貴淑 (1996). 言語たよる建築的空間の表現た關する基礎的考察. 京都工藝織維大學院 博士學位論文.
8. 若山 滋 (1990).『源氏物語』における建築空間.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408號. pp.93-99.
9. 奥野建男 (1983). 小説のなかの銀座. 砂子屋書房.
10. 張文, 中川景子, 若山 滋 (1995).『万葉集』た現れる建築と環境の関係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408號, pp.93-98
11. 前田 愛 (1982). 都市空間のなかの文學. 築摩書房.
12. Darden, Dooglas (1993). *Melvila: An Architect's Reading of Moby-Dick*. A+U. No.272.
13. Frank, Ellen Eve (1979). *Literary Archit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4. Schumacher, Thomas (1977). From Gruppo 7 to the Danteum: A Critical Introduction to Terragni's Relazione sul Danteum. *Oppositions*. MIT Press. Summer, pp.89-107.

